

2009년 01월 26일 (월) 15:14 [연합뉴스](#)

인천문화재단 "저소득층 축제 참가 많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민 10명중 4명만이 문화예술행사 또는 축제를 관람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문화재단이 발표한 '2008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에 따르면 인천시민 10명중 4명은 최근 1년 내 인천 지역축제에 참가 또는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 관람경험은 월 400만원 이상(44.8%), 200만원 이하(44%), 200만~299만원(39.3%), 300만~399만원(32.6%)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교적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이 67.9%로 가장 많고, 중부와 남부, 북부지역은 32.5~33.9%로 비슷하다.

지역축제의 바람직한 유형으로는 '전통, 역사, 민속을 주제로 한 축제'(35%)가 가장 많고, '인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22%)를 다음으로 꼽았다.

또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콘서트와 마술 등의 대중문화 공연(31.5%)에 관심이 많은 반면, 여성은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30.5%)의 관람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천문화재단 측은 "인천지역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지역 축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정책 등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mg@yna.co.kr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